

정선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고찰

- 여성이 부르는 가사를 중심으로 -

맹문재*

「차례」

1. 서론
2. 정선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2. 1. 낭만적 사랑
 2. 2. 열정적 사랑
3.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 중에서 여성의 사랑을 노래한 것들을 고찰했다. 그동안 정선아리랑에 대해서는 그 유래, 배경, 형식과 율격, 주제, 특성, 다른 아리랑과의 비교, 음악 및 무용의 측면, 전승 및 국제화 문제 등의 연구가 있었지만 가사 자체를 심도 있게 고찰한 것은 부족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여성의 사랑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는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한 사람의 발견보다 특별한 관계를 중요하게 추구하는 합류적 사랑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봉건적 가부장제의 질서에 맞서는 것이어서 주목되었다. 정선아리랑의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양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이 논문이 정선아리랑의 내용 및 주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정선아리랑, 긴아리랑, 엮음아리랑, 자진아리랑, 가사, 낭만적 사랑, 열정적 사랑, 합류적 사랑, 페미니즘.

1. 서론

정선아리랑¹⁾은 다른 민요들에 비해 지역민들에 의해 실제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민들이 들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육체적 노동이나 공동체 생활이 감소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정선아리랑이 불리는 정도가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정선아리랑에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써 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선아리랑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가사에 대한 고찰이 그 중 한 가지이다. 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선아리랑에 관한 연구의 토대이고, 정선아리랑의 확대와 전승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 가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의 사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정선아리랑의 가사에서 여성의 사랑이 중요한 내용 및 주제이기 때문이다.²⁾

-
- 1) “1970년의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정선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해서 입상하고, 그것이 1971년 강원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록되면서 긴 아라리를 정선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일이 보다 공식적으로 확산되었다.” 강동학, 『정선아라리의 연구』, 집문당, 1993, 12~13쪽.
 - 2) 그와 같은 면은 정선아리랑의 비문에 “아우라지 뱃사공에게 떠나는 임을 근심하던 아낙네의 그윽한 정한이 서럽도록 그림던 터전이었노라.”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김지연이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1930. 6)에 정선아리랑의 가사를 소개한 뒤 『별곤건』(1933. 5)에 「구정선 아라리」 6수가, 『동아일보』(1937. 11. 21)에 「정선어러리」 5수가 소개되었다. 그 후 연규한이 120수의 정선아리랑 가사를 수록한 『정선아리랑』(문화인쇄사, 1968), 정선아리랑위원회가 550수의 정선아리랑 가사를 수록한 『정선아리랑』(문화인쇄사, 1968), 강동학이 정선아리랑 가사를 수록하고 분석한 『정선아라리 연구』(집문당, 1988), 김시업 등이 2,599수의 가사를 수록한 『정선의 아라리』(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3), 진용선이 1,200수의 정선아리랑 가사를 수록한 『정선아라리 그 삶의 소리 사랑의 소리』(집문당, 1993) 및 1,200여 수의 정선아리랑 가사에 주석을 붙인 『정선아리랑 가사집』(집문당, 2003) 등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유재근이 정선아라리의 가사에 나타난 의식을,³⁾ 고자영이 정선아리랑에 담긴 한을,⁴⁾ 박승만이 정선아라리의 시대적 가치관을,⁵⁾ 유영표가 정선아리랑에 나타난 골계미를⁶⁾, 유명희가 정선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문학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⁷⁾, 유동완이 정선아리랑에 나타난 여성 의식을⁸⁾ 학위논문으로 고찰했다.⁹⁾

-
- 3) 유재근, 「정선아라리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995.
 - 4) 고자영, 「정선아리랑에 나타난 한의 이해와 해원 : C. G. 음의 분석심리학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5) 박승만, 「정선아라리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2000.
 - 6) 유영표, 「정선아라리에 나타난 골계양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2.
 - 7) 유명희, 「아라리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5.
 - 8) 유동완, 「정선 아리랑의 여성 의식에 관한 철학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2009.
 - 9) 정선아리랑을 다른 분야와 연계해 연구한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고숙경, 「정선아리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1980. ② 강은경, 「아리랑 선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1996. ③ 이경하, 「관광지 설화가 관광 목적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선아리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1997. ④ 이

이처럼 정선아리랑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가사 수집 같은 기초적인 면, 정선아리랑의 음악·무용·전승·국제화 문제 같은 응용적인 면, 정선아리랑의 형식과 율격적인 면, 다른 아리랑과의 비교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정선아리랑의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양상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 이유는 정선아리랑의 가사가 지역민들의 토박이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난해한 점이 있는데다가 여성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만한 학문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 가사의 총 28수 중에서(후렴구는 제외)¹⁰⁾ 사랑을 노래한 15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긴아리랑의 9수 중에서 4수, 자진아리랑의 11수 중에서 8수, 엮음아리랑의 8수 중에서 3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¹¹⁾ 남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도 여성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확인해본 결과 그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사랑을 노래한 가사는 있지만 여성의 사랑만을 노래한 가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 15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성인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 15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대표성을 갖는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정

용채, 『민요 “정선아리랑”과 정부기 “정선아리랑”의 주제에 의한 농요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2001. ⑤ 소라, 『이준복의 피아노 작품 <Korean Rhapsody by "Arirang">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2005. ⑥ 인치서, 『정선아리랑의 춤의 요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2006.

10) 후렴구의 가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이다. 앞의 가사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동시에 뒤의 가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맹문재, 『정선아리랑 가사의 주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425~426쪽.

11) 나머지 13수의 내용은 남녀평등(4수), 가족애(7수), 인생(1수), 시름(1수) 등이다.

선아리랑 저장소'에는 ① 남자가 부르는 긴아리랑, ② 여자가 부르는 긴아리랑, ③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르는 엮음아리랑, ④ 남자가 부르는 엮음·자진아리랑, ⑤ 여자가 부르는 엮음·자진아리랑 등을 소개해 놓고 있다.¹²⁾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가사들이 정선아리랑 중에서 가장 유래가 깊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사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면 정선아리랑의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의 사랑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3천수 이상의 가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모든 가사들을 살펴보는 일은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 정선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

2.1.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은 예감되고 변화될 수 있는 미래로 지향하는 삶의 궤적을 제공한다. '공유된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개인을 더 넓은 사회적 상황에서 떼어내고 사랑의 특수한 우월성을 부여한다. 낭만적 사랑은 기원에서부터 친밀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그것은 욕정이나 노골적인 섹슈얼리티와는 양립불가능하다. 이는 단지 사랑의 대상을 이상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격을 띠는 정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12) <http://www.jacf.or.kr/Music/list.asp>. 실제의 현장에서는 남성이 부르는 아리랑을 여성이 부르기도 하고 여성이 부르는 아리랑을 남성이 부르기도 하지만,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분류한 것처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가사를 선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에는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겸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상대는 단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워준다.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¹³⁾

낭만적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고 위반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지만 승리를 이루어낸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방과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의미를 표출하고, 미래가 발전해나갈 길을 펼쳐 보인다. 낭만적 사랑은 ‘추구’(quest)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발견해줌으로써 인정받기를, 즉 그의 정체성이 타자가 발견해줌으로써 비로소 인정받기를 기다린다. 이는 능동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중세의 낭만적 이야기와는 대조된다. 중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라면, 낭만적 사랑에서의 여성은 독립적이고 생기발랄하다. 그리하여 여성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한 남성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누그러뜨린다. 남성의 무관심을 녹이고 적대감을 헌신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의 사랑은 자신에게 되돌아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게 된다. 상호적 애정을 함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낭만적 사랑은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가 추구하는 면이다.

아우라지¹⁵⁾ 뱃사공아 배 좀 건네 주게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긴아리랑, 제2수)¹⁶⁾

13)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83~84쪽.

14) 위의 책, 86~87쪽.

15)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 있는 지명.

16) 정선아리랑 가사의 2,600여 수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 노래의 내력에서 서사적 사건과 극적 정황을 깔고 있는 점, 극적 독백체 서술이어서 흥미와 공감적 호소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노래의 배경이 아우라지라는 정선의 구체적인 공간이면서도 남녀의 애틋한 사랑의 공간으로 열려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김학성, 『정선아리랑 가창자의 가창 선호도에 대한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382쪽.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가사들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있지만 원형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정선아리랑 저장소’에 수록된 대로 옮긴다.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강을 빨리 건너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아우라지”는 정선의 여량리에 있는 지명으로 정선아리랑 가사의 대표적인 배경 중 한 곳이다. 태백산 골짜기에서 임계 쪽에서 흘러내리는 골지천과 평창 쪽에서 흘러내리는 송천이 합류하는데, “아우라지”는 흘러내리는 두 물이 어우러진다는 말에서 생겨났다. 한때는 남한강 뗏목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짜리골”은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에 있는 마을이고, “올동박이”는 봄에 노란 꽃이 피고 가을에 까만 열매가 달리는 생강나무이다. 이 가사는 여량리에 살고 있는 처녀와 유천리에 살고 있는 총각이 “짜리골”에 동백을 따러 갈 것을 약속했다가 뒷날 비가 오는 바람에 강물이 불어 건널 수 없게 되자 안타까움을 노래했다는 사연이 전해진다. 따라서 물이 불어 강물을 건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뱃사공”에게 배를 좀 건너 달라고 하소연한 것이나, “짜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속마음을 간절하면서도 절묘하게 노래한¹⁷⁾ 낭만적 사랑의 모습이다.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사랑을 주도하는데 비해 이 가사에서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¹⁸⁾

저 건너 저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¹⁹⁾ 같이 또 한해 묵네

(긴아리랑, 제4수)

“묵밭”이란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바람에 묵고 있는 밭인데,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의 처지가 그와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농토의 임자가 농사를 짓지 않아 “작년에도 묵”었고 “올해도” 묵고 있는 “묵밭”의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묵고 있는 “날과” 같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임이 찾아주지 않아 자신의 몸이 혹은 마음이, 또는 몸

17) 맹문재, 앞의 논문, 429쪽.

18) 화자를 남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청자가 여성인 점을 최대한 고려했다.

19) 나와.

과 마음 모두 “묵밭”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²⁰⁾

당신이 날 생각을 날만침만²¹⁾ 한다면
가시밭길 수천 리라도 신발 벗고 가리다 (긴아리랑, 제8수)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사랑하는 입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당신이 날 생각을” “날만침만” 한다면 “가시밭길 수천 리라도 신발 벗고” 달려가겠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이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여성 화자는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날마다고²²⁾ 울치고 담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오이김치 초치고
칼로 물친듯이 툇 떠나가더니
평창 팔십리 다 못가고서 왜 되돌아 왔나 (억음아리랑, 제2수)

‘치다’라는 동음을 활용하며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당신”은 여성 화자에게 “날마다고”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듯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열무김치에 소금을 치고 오이김치에 식초를 치듯, 또 칼로 물을 치듯 아예 떠나갔다. 그런데 “당신”은 강원도 정선에서 “평창”조차 이르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다. 여성 화자는 그와 같은 “당신”에게 “왜 돌아왔나”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떠났다가 돌아온 입을 고마워하며 내치지

20) ‘묵밭’을 육체로 본다면 열정적 사랑을 노래한 가사로도 볼 수 있다.

21) 나만큼만.

22) 날 마다하고.

않고 받아들인다. 그만큼 여성 화자는 “당신”에 대한 낭만적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연애는 솔방울 연애편지
바람만 간시랑²³⁾ 불어도 똑 떨어진다 (자진아리랑, 제7수)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솔방울” 같은 자연물에 비유해서 “바람”이 살짝 불어도 “떨어”지는 “솔방울”만큼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현재의 불안한 애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친밀하고 싶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낭만적 사랑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알기를 흑싸리²⁴⁾ 껍질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 알기를 공산명월²⁵⁾로 알아요 (자진아리랑, 제9수)

여성 화자는 화투에 빗대어 “당신”에 대한 낭만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당신”이 자신을 “흑싸리 껍질”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지 않고 “당신”을 “공산명월”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화투에서 “흑싸리 껍질”은 낫수가 없는 것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의미하고, “공산명월”은 광(光) 자가 있는 20끗짜리로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반된 화투의 패를 대조하며 “당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을 아무

23) 사랑.

24) 화투에서 검은 싸리와 까마귀가 그려졌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 실제로는 등나무와 두견이 그려져 있음. 사월을 나타내며 낫수로 네 낫. 흑싸리가 들어오면 안 좋은 패로 여김. ‘흑싸리 껍질’(껍데기)은 아무 쓸모없는 하찮은 것을 비유함.

25) 화투에서 산과 달이 그려진 패. 팔월을 나타내며 여덟 낫. 화투는 광(光) 자가 있는 20끗짜리, 10끗짜리, 5끗짜리, 그리고 낫수가 없는 것(홀껍데기) 등 네 가지로 나뉨. 공산명월이 들어오면 20끗으로 좋은 패임.

쓸모도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이다.

행주치마²⁶⁾를 뽄뽄말아서 옆옆에다 끼고
총각낭군이 가자고 할 적에 왜 못 따라 갔나 (자진아리랑, 제10수)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총각낭군”이 집을 떠나 살림을 차리자고 할 때 “왜 못 따라 갔”는지 후회된다고 노래하고 있다. “행주치마를 뽄뽄 말아서 옆옆에다 끼”는 모습은 집안에서 하던 살림을 버리는 것이다. 여성 화자는 “총각낭군”이 다른 곳(도시인 듯)으로 가 살림을 차리자고 했지만 끝내 따라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미안함 때문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그 행동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동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란 놈이 뛰는 것은 멀리 가자는 뜻이요
이내 몸이 웃는 뜻은 정들자는 뜻일세 (자진아리랑, 제11수)

여성 화자는 “개구리”의 속성과 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개구리”가 “뛰는 것은 멀리 가”려는 것이지만, 자신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웃는다. 그 이유는 “정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인연이 된 상대와 사랑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랑은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위의 정선아리랑의 가사들에서 보듯이 여성 화자는 다양한 낭만적 사

26) 부엌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앞쪽만 가려 돌려 묶는 작은 치마.

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 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화자는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남성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 남성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여성 화자가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주제는 본질적으로 낭만적 사랑이다. “영역의 구분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랑을 키워가는 일은 전적으로 여성들의 과업이 되었다. 낭만적 사랑의 관념들은 분명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종속과 외부 세계와의 상대적 분리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관념들의 발전은 한편으로 여성들의 권력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²⁷⁾ 그리하여 여성들에게는 여성성과 모성의 융합에 의해 친밀성의 영역이 마련되었다. 정선아리랑의 여성 화자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이 그 모습이다. 남성과의 공유성을 창조해 상호 애정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랑을 추구한 것이다.

2.2. 열정적 사랑

사랑이란 하나의 열정이다. 사랑의 열정으로 몸과 마음에 수많은 고통과 갈등이 생기고 과대 포장된 소문들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열정으로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들고 삶의 활력이 넘친다. “‘열정’이라는 말이 종교적 열정을 뜻하는 이전의 용법과 달리 세속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일이다. 이 새로운 용법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열정적 사랑(passionate love)과 관련시켰을 때

27)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미 옮김, 앞의 책, 83쪽. 낭만적 사랑의 발생은 18세기 후반부터 가정의 창조, 가부장제의 쇠퇴로 인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 변화, 모성의 발명 등의 배경을 갖는다. 모성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화를 유지했다. 위의 책, 81~82쪽.

뜻이 통하게 된다. 열정적 사랑, 즉 아무르 빠시옹(amour passion)은 사랑과 성적 애착 사이의 일반적 연관을 표현한다.”²⁸⁾

열정적 사랑은 일상생활과는 다른 영역이다. 오히려 감정적인 면이 강하게 스며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무를 잊게 해 일상생활과 갈등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상대에 강력하게 빠짐으로서 세상의 관심사나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멀어진다. 심지어 현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정적 사랑은 사회의 질서나 관습이나 제도나 법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것이다.²⁹⁾

그리하여 열정적 사랑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과는 대립되는 감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자연과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 대체로 부정적으로 취급되었다. 그리하여 성을 죄악시해 일부일처제 결혼에 의한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정당화되었다. 또한 성을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남성은 강한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³⁰⁾

라이히(Wilhelm Reich)는 그와 같은 남성을 소인배라고 명명하며 비판했다. 그가 명명한 소인배는 걸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 중에서도 인습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 자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신경증 환자들이며, 권력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포함된다. 소인배는 여성이 자유를 외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데, 라이히는 그들의 신경증이 성적 에너지의 억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리하여 성을 권력의 반대편에 놓았고 적절하게 표현된 성은 삶의 활력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³¹⁾

정선아리랑의 가사에서도 열정적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8) 위의 책, 75~76쪽.

29) 위의 책, 76쪽.

30) 정은희, 『사랑과 성규범』, 『여성과 한국 사회』(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8, 275~277쪽.

31)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미 옮김, 앞의 책, 240~242쪽.

그것이 여성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면은 실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열정적 사랑은 심리적인 차원보다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여성의 경우 제한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문제없이 수용되어 왔다.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정적 사랑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강조하고 남성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남성은 여성의 열정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비해 정선아리랑의 여성 화자는 당당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떨어진 동박³²⁾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³³⁾ 임 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긴아리랑, 제3수)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임 그리워” “못살겠”다고 직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떨어진 동박”이 “낙엽”에 떨어져 쌓인 모습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껴안은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 화자는 “사시장철”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동박”과 같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열정적 사랑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강렬한 욕망 중의 한 가지이다.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그와 같은 욕망을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산진매³⁴⁾나 수진매³⁵⁾나 휘휘칭칭 보라매³⁶⁾야
절근³⁷⁾밑에 풍경달고 풍경밑에 방울달아
앞남산 불까토리³⁸⁾ 한마리 툇차가지고 저 공중에

32) 동백.

33) 四時長晝. 네 철의 어느 때나 항상.

34) 산진이 : 산에서 자라고, 여러 해 묵은 매.

35) 수지니 : 손으로 길들인 매.

36)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

37) 절간.

38) 암평.

높이 떠서 빙글 뱅글 도는데

우리집 저 멧텅구리는 날 안고 돌줄 몰라 (엮음아리랑, 제2수)

여성 화자는 “매” 한 마리가 “불까토리”를 채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도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안고 돌줄” 모르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 “매”는 여러 해 묵은 “산진이” 있고, 손으로 길들인 “수진”이 있으며,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보라매”가 있는데, 어느 “매”든지 사냥을 잘한다. 그리하여 앞쪽 “남산”에서 “불까토리 한 마리 특차가지고” 하늘 “높이 떠서 빙글 뱅글” 잘 돌고 있다. 그런데 “우리집 저 멧텅구리는 날 안고 돌줄” 모른다고 부아를 내고 있다.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가 남편을 “멧텅구리”로 폄하해서 호칭한 것은 주목된다. “멧텅구리”는 본래 바닷물고기 이름인데, 못생기고 동작이 굼뜨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열정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영감은 할멈치고 할멈은 아³⁹⁾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치고 마당웃전에 수양버들은

바람을 맞받아 치는데

우리집의 서방님은 낮잠만 자네 (엮음아리랑, 제4수)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치”는 행동을 통한 말놀이로써 아내를 멀리하는 “서방님”을 원망하고 있다. “영감”은 “할멈”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고, “할멈” 역시 “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고, 아이는 “개”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고, “개”는 아이에 대한 인사로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을 치

39) 아이.

고, “수양버들은” “바람을 맞받아” 치는데, “우리집의 서방은 낮잠만 자”고 있을 뿐 왜 “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치”는 행동이란 손으로 상대에 닿거나 부딪치는 것이므로 위의 가사에서는 부부 간의 성행위를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요놈의 총각아 내 손목을 놓아라

물 같은 요 내 손목이 얼그러진다⁴⁰⁾

(자진아리랑, 제6수)

여성 화자는 자신의 “손목”을 잡는 “총각”에게 행동을 그만두라고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물 같은” 연약한 “손목이 얼그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 화자의 거부에서 사랑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성이 주도하는 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상대방을 “요놈의 총각아”라고 하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자신이 결코 남성에 종속될 수 없음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꿀뚜바우⁴¹⁾ 아저씨 나쁜 놈의 아저씨

맛보라고 한잔 줘더니 볼 때마다 달라네

(자진아리랑, 제12수)

여성 화자는 “꿀뚜바우”가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아저씨”를 “나쁜 놈의 아저씨”라고 낮잡아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맛보라고 한잔 줘”는데 “볼 때마다 달라”고 귀찮게 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맛을 보라고 대접한 것은 술이나 음료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여성 화자를 만날 때마다 달라고 하는 것은, “달라”라는 말 속에는 몸을 허락하여 성관계를 맺자는 뜻이 들어 있으며

40) 이그러지다. 불쾌함 따위로 인해 퍼지지 못하고 비틀리다.

41)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에 있는 큰 바위. 고두암(高頭岩). 지명으로도 불림.

로 치근덕거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화자는 그를 “나쁜 놈”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다. 남성의 비인격적인 성적 요구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동박나무를 꺾는 소리는 와지끈 지끈 나는데

우리님 소리는 간 곳이 없구나

(자진아리랑, 제13수)

위의 가사에서 여성 화자는 “동박나무”가 꺾이는 “소리”와 자신을 꺾지 않는 “우리님 소리”를 대조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동박나무”가 꺾이는 소리를 “와지끈 지끈” 난다는 것으로 표현한 점이 관심을 끈다. “와지끈”은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소리나 그 모양이고, “지끈” 역시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소리나 그 모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 화자가 그와 같은 소리나 모양을 내지 않는 “우리님”을 원망하는 것은 곧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앞 남산 딱따구리는 생구멍도 뚫는데

우리집 저 멧덩구리는 뚫어진 구멍도 못뚫나

(자진아리랑, 제15수)

여성 화자는 “앞 남산”의 “딱따구리는 생구멍도 뚫는데” “우리집”의 남편은 자신의 “뚫어진 구멍도 못뚫”는다고 원망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열성적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남편을 아둔하고 어리석은 “멧덩구리”로 비난하는 것은 삼중지도를 여성의 도리로 삼는 가부장제의 사회에서는 대단한 일탈이다. 그렇지만 여성 화자는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근대사회 이전에는 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으로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정적 사랑의 추구가 어려웠다.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농업노동을 조직하는 수단이었다. 끊임없이 고된 노동으로 특

정지워지는 삶은 성적 열정에 맞지 않았다.”⁴²⁾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육체적 애정을 열정적 사랑의 추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특히 근대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해 열정적 사랑의 표출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성적 욕망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억압의 체제에 예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위험은 바로 거기에 있으며, 신앙의 지도자, 도덕학자, 교육자, 의사가 이전의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듯이 성은 위험한 비밀이고, 그래서 그것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이 그토록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성을—양심상의 거리낌에서든 죄에 대한 과민한 감각이나 위선에서든, 그 밖의 다른 이유에서든—침묵으로 내몰아왔기 때문이다.”⁴³⁾라는 진단을 토대로 열정적 사랑에 대한 담론이 마련된 것이다. 성적 욕망의 장치를 일반화된 억압과 관련지어 재해석하고, 그러한 억압을 전반적인 지배와 착취의 기제들에 결부시키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서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연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민요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⁴⁴⁾ 정선아리랑이 “‘특별한 사람’의 발견이 갖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게”⁴⁵⁾ 되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42)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미 옮김, 앞의 책, 77쪽.

43)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출판, 1993, 141쪽.

44) 이매창, 매화, 명옥, 송이, 진옥, 한우, 흥남, 흥장, 황진이 등의 시조도 역할을 했다. 귀양 온 송강 정철이 “옥이 옥이라커늘 변옥만 여겼더니/이제야 보아하니 진옥일씨 적실하다/내게 살송곳 있으니 뚫어 볼까 하노라”라고 읊자, 평안북도 강계의 기생이었던 진옥이 “철이 철이라커늘 십철만 여겼더니/이제야 보아하니 정철일씨 분명하다/내게 골풀무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라고 화답한 것이 한 예이다.

45)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미 옮김, 앞의 책, 108쪽. 합류적 사랑은 관능의 기술을 결혼 관계의 핵심에 도입한 사랑 형태로서 성적 쾌락의 상호적 성취를 결혼 관계의 유지 또는 해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성적인 기술의 배양과 성적 만족을 일으키고 느끼는 능력은, 다양한 성 정보와 충고와 훈련을 통해 성찰적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이성애의 커플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합류적 사랑은 그와 같은 차원을 넘어 타자의 특성에 대한 앎을 중

love)에 이를 정도로 사랑의 차원을 확대하지는 못했지만, 봉건적 가부장제나 일부일처제의 지배에 따른 남성 위주의 사랑에 종속되지 않는 열정적 사랑을 추구한 것이다.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어휘들을 해석하면서 사랑의 양상을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낭만적 사랑의 관점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 사랑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 등을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열정적 사랑의 관점으로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 비인격적인 성의 요구에 대한 거부, 성관계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남편에 대한 비판 등을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타자와의 일체감을 창조하며 투사적 동일시를 이루는 차원을 넘는 새로운 사랑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합류적 사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봉건적인 가부장제의 질서에 맞서는 여성들의 사랑 양상을 확인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 28수 중에서 사랑을 노래한 15수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고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부르는 긴아리랑의 가사 9수 중에서 4수, 자진아리랑의 가사 11수 중에서 8수, 엮음아리랑의 가사 8수 중에서 3수를 고찰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가사들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발간한 음반을 비롯해 각종 자료에 수록될 정도로 유래가 깊고 대표성을 갖는다.

심으로 관계가 이룩된다. 합류적 사랑은 상대방의 섹슈얼리티를 관계를 일구어가기 위해 협상되어야 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여 사랑 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다. 위의 책, 110~111쪽.

정선아리랑은 “가락과 선법에서 한국 민요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의 감정 또한 가장 잘 표현”⁴⁶⁾하고 있다. 정선아리랑은 지극히 생활적인데다가 토착성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민요들이 명맥만을 유지하는데 비해 구비문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선아리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여성이 부르는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사랑을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으로 나누어 살펴본 이 논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정선아리랑 소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http://www.jacf.or.kr/Music/list.asp>).

『정선아리랑』(CD),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03.

『정선아리랑』, 정선군, 2005.

『정선아리랑 전승 실태 조사보고서』, 정선군, 2007.

2. 단행본 및 논문

강등학, 『정선아리랑의 연구』, 집문당, 1993, 12~13쪽.

김연갑, 『아리랑 시원설 연구』, 명상, 2006.

김학성, 「정선아리랑 가창자의 가창 선호도에 대한 연구」 『한국 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382쪽.

맹문재, 「정선아리랑 가사의 주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425~426쪽.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출판, 1993, 141쪽.

46) 고숙경, 「정선아리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1980, 2쪽.

- 앤소니 기든스, 황정미·배은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77~242쪽.
- 유동완, 「정선아리랑의 여성의식에 관한 철학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2009.
- 유명희, 「아라리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5.
- 유영표, 「정선아라리에 나타난 골계양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2.
- 유재근, 「정선아라리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995.
- 이근후, 「프로이드적 여성 심리 이해」, 『여성학』(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정은희, 「사랑과 성규범」, 『여성과 한국 사회』(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8, 275~277쪽.

Abstract

A Study on Women's Love in the Words of Jeongseon Ariang

Maeng, Mun-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Jeongseon Arirang from the aspects of love, romantic love and passionate lov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s of the words of Jeongseon Arirang is about singing song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lovers. Jeongseon Arirang shows how people interpenetrate into other's mind by representing various aspects of their life, that is work, hardships, sorrow, yearning, and love. Thus, the words of Jeongseon Arirang are related to women's love. Through the song, Jeongseon Arirang, we can understand various patterns of Jeongseon people, or their society, nature, life, and love. Jeongseon Arirang has been sung not only by men of Jeongseon region but also by women in general. In this sense, Jeongseon Arirang can be said to record the life and love of Jeongseon people as a whole.

The Jeongseon Arirang embodies the various content of bitter feelings of, for example, the wounds of love, separation, uneasiness of life, poverty, sexual desire and so on. With this, these words reveal the reality and wisdom of common people's life and love. Therefore, the words of Jeongseon Arirang are inseparably related to people's life and love. That means that when we listen to or sing Jeongseon Arirang, we should consider the situation of Korean women.

Jeongseon Arirang is a folk song which is su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spoken language. The history of Jeongseon Arirang dates back to the times even before Chosun Dynasty. The fundamental feature of folk song reflects people's pain, sorrow, and love.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words of Jeongseon Arirang, and finds the love and sexual appetite theme of men and women that dominates the song.

Key words : Jeongseon Arirang, Long Arirang, Compiled Arirang, Jain Arirang, words, romantic love, passionate love, confluent love, Feminism.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